

# 공공의료기관 중환자실(I.C.U)을 이용한 환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 분 옥  
서울시립동부병원

현대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함께 질병의 양상도 다양해 지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화는 되었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비의 증가 등은 여전히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중환자실을 이용하였던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의료부문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가 된 의무기록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시립 D병원이며 1994년 330부, 1996년 178부로 총 508부였다.

1. 연령상으로 1994년에는 40대이후 중년층이 많았던 것에 비해 1996년에는 60대 이후 노년층이 더 많았다. 이점은 공공의료기관에 노인요양 전문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의료보장 형태별로는 의료보험이 51.0%, 의료보호가 49.0%이다. 이중 의료보호 1종은 약 25% 정도를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및 일반 이용군이 1994년도 보다 1996년에 크게 증가했음을 나타냈다. 이점은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하므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가 요구된다.

3. ICU 평균 재실수는 6.3일로 연도별 차이는 없었다. 총재원일수는 평균 26.6일이며, 총입원비는 130만원이었다. 각년도 모두 총재원일수는 ICU전·후 재원일수가 영향력이 큰 변수였으며, 총입원비는 ICU 재실수가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ICU 재실수는 입원경과 생존인 경우 5~7일 정도이며 8일 이후 사망이면 16~21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과 회복여부는 ICU 후 재원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회복시 15.6~16.5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의료기관인 시립병원과 구청(가정복지과)간에 자원봉사 “도우미” 인력을 “행정연계”로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소득층·보호자없는·여성노인 인구의 공공의료기관 중환자실 재입원 횟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공공의료비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병상가동률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